| 황재훈 | 충북대학교 교수 |

창조도시로서의 도시설계 전략

A Creative City with Urban Design Strategies

Ⅰ. 서론

현대는 심화된 도시화로 인간중심적 도시정주체계는 자연과 공존은 근간으로 하여 시대정신을 반영한 끊임없는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특히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도시들이 상징적 시설이나 공간 그리고 새로운 기능의 창조를 통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은 물론 자생적 문화와 독창적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도 한다. 이렇듯 도시는 변화하는 유기체이면서 인간의 삶을 담는 용기(容器)로써 끊임없는 자기제어적 변화(Self-regulating change)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서 물리적 속성을 결정하는 비물리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도시학자와 사회학자들사이에 창조성이 화두를 이루고 있다. 창조성이 가지는 종교적 어원에서 벗어나 인간차원에서 기존의 도시나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출현을 모색하게 되었다. 아직은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기본 개념이 가지는 당위성과 의미에 많은 학자와 행정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창조성이란 개념을 도시적 차원에서 재해석 해보고 이미 도시공간에서 이런 창조적 개념을 가진 공간과 시설을 유형별로 고찰해보고 이를 현재의 국내 도시설계에 개념적으로 적용해 볼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틀

1. 창조도시의 개념 및 역사

1) 창조도시의 개념

현대사회에서는 창조라는 개념을 재인식하고 그것을 학문 및 이론에 적용시키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창조도시』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시를 창의력 있고 차별성·경제성 있게 계획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게 한다. 창조도시에 대해 피터 드리커는 창조도시를 "생산수단은 더 이상 자본도 아니고 자연자원도 아니며...노동도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식이고 앞으로도 지식일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으며, 창조하는 도시의 저자 사사키 마사유키는 "인간이 자유롭게 창조적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동시에 탈 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 라고 정의하였다.

앞에 내용을 토대로 창조도시의 개념은 "독자적인 정주환경체계를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내발적 발전(Self-motivatin Development)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과 고부가 맞춤산업을 창출하는 혁신형 도시"를 창조도시라고 볼 수 있다.

2) 창조도시의 역사

창조도시에 대한 이론적 역사는 사실 1990년대부터 일부 학자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창조에 대한 개념은 확대 해석해보면 이는 인간의 도시생활의 역사와 함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창조의 어원은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이는 신이나 조물주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신적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이는 계몽주의(Enlightenment)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세계와 우주의 중심이 신에서 인간에게 이동하면서 비로소 창조의 단어도 인간의 사고와 작업영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현상에서 탈피하거나 개념적 연속선상, 혹은 통념이나 관습과 배제된 행위나 결과 혹은 과정을 창조라는 개념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더니즘의 사고와 철학은 창조의 개념과 가장 가깝게 인식되었다. 비록 현대의 사조가에게는 비판의 빌미와 새로운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를 열게 하였지만 역사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사고, 제품, 그리고 시설의 도출은 기본적으로 창조적 행위인 것이다.

도시개발이나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대두되었던 "창조도시"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초래되었다. 기존의 물리적이거나 외형적 특성에서 벗어나 자생적이고 비물리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전통적 세계문화(미국중심)의 주류에서 소외되었던 국가들의 주도권 탈환의 일환이 목적이 되었는데 이는 EU통합과 함께 세계질서 재편과 맞물림 현상으로 이해된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이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였고, 2003년 한국에 개념이 도입되어 "통영국제 음악제 학술발표대회"등에서 창조도시에 대한 내용이 토론되기도 하였다.

3) 창조도시의 공통점

창조도시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서도 공통된 몇 가지 견해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Rehabilitation'은 쇠퇴한 옛 시가지의 재생의 일환으로 창조적 문화공간으로 개발하기위해 못쓰게 된 산업시설 등을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오페라 극장, 시민 예술센터, 산업 박물관, 컨벤션 센터, 자료관, 테마공원 등 문화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개선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다.

둘째, 'Visual Amenity' 도시의 역사성과 전통적인 도시 양식을 보존하면서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격조 높은 문화 도시로 가꾸고 도시경관 보존운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셋째, 'Fitling production' 문화와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지역의 전통공예, 하이테크 시대의 장인적 생산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넷째 'Macro Plan System'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규모 개발이나 공해산업 등의 유치를 경계하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계획을 모색하며 광역적 환경관리계획을 추진한다.

다섯째, 'Dominance Citizaushiip' 시민 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문화, 산업, 복지, 환경 등 비영리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도시역량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민, 지역산업체, 지치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센터를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한다.

여섯째, 'Enviroment Awareness' 도시 주민의 창조력과 감성을 높이는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자연 환경 가꾸기, 환경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 하며 쾌적한 도시, 매력적인 생활공간을 형성한다.

일곱째, 'Cultural Imdustry' 산업지구에서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전통산업의 노하우, 기능을 보존, 승계, 혁신하여 경재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자본의 고도화와 문화적 생산의 주역인 하이터치 인재를 양성한다.

여덟째, 'Self Development System' 지역의 문화, 경제 시스템을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및 임프로비제이션(improvisation)에 의한 수정자재형 체재 유지예능, 산업 및 특장산업기술을 새로운 도시형 산업을 육성한다.

III. 창조도시의 과정과 특성

창조도시의 특성을 과정과 함께 정리하면 기존의 생활환경 혹은 도시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지역 혹은 대상과 차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간과 시설로 조성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창조도시로 나타나게 된다.

1. 창의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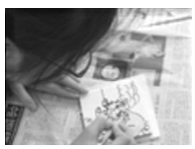
1) 내재적 잠재력(자원) 파악을 통한 이슈화된 아이디어

도시의 잠재력(자원)과 문제점을 분석(4향성분석, SD분석 등)하여 약점을 강점으

Valon Voimat

로 승화시키는 노력과 지혜의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 헬싱키의 백야현상을 이용하여 밤의 계절에 빛을 활용한 바론 보이마트(Valon Voimat)페스티발이 있다.

2) 대안을 통한 합의도출


Charrette

내재된 잠재력을 단순히 특성화 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도출을 위한 대안시나리오 작성하고

자체적 평가를 통한 검증의 방법을 사용하며 이를 구성원 합의를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한다.(예: 샤렛기술)

3) 사회문화적 공감대 형성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시범사업이나 지원 사업으로 연계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파이럿(Pilot)프로그램으로도 설정 및 운영한다.

(예: Urban Pilot Program-생태기술과 도시재생을 결합하려는 국제프로그램)

2. 차별성

1) 최초의 가치

가장 보편적으로 창조성에 대해 접근하고 인식되는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원을 활용하여 최초의 성격으로 특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독일 프라이브르크의 생태도시와 바람길이 있다.

도심지 녹화

2) 아이디어의 가치

프라이브르크

발견을 통한 유레카로 포스트 포디즘(대량생산에서 탈피한 고부가 주문생산)을 추구한다. 성공적인 사례로 단순한 니트산업뿐만 아니라 식료품, 약품, 그리고 페라리로 대표되는 첨단산업까지 산업지구의 성공적 복합체(Cluster)를 형성한 이태리 볼로냐가 있다.

3) 지역의 성공적 해석(지역적 특성)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이해하거나 내재된 잠재력의 발로로서 기본적 현황을 바탕으로 개념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사례로 나토의 군사집적지에서 지역 전통을 바탕으로 승마공원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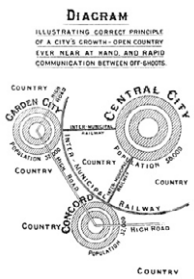
3. 경제성

1) 도시의 경쟁력

새로운 창조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근거의 확실성을 나타내며 이는 전문화와 분업

화를 통한 단위분야의 우월성으로 나타난다. 성공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의 경우 혁신적 사고를 통한 시민참여형 예산제도를 통해 20%이상 예산 절감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2) 도시마케팅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대외홍보와 교류를 통한 체질을 강화하고 물리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물리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이는 브라질의 꾸리찌바의 자원재활용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있다.

3) 풍요로운 삶에 질

창조의 성공적인 결과로 인식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으로 하워드의 전원도시나 이상도시 나아가 유토피아 개념의 공통적 목표인 안전, 평화, 공동번영으로 연결된다.

Ⅳ. 창조도시를 위한 도시설계 이론

1.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기존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 말하며,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 Urban Renewal), 도시재활성화(Urban Revitalization), 도시쇄신(Urban Renovation)등의 복합어들을 포괄한다. 도로, 공원등의 도시기반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어메니티(Amenity) 개선사업, 시가지주택공급, 업무?문화?도시핵심기능의 강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멀티플렉스, 역사적 거리경관의 보전 및 복원, 각종 특수시설을 유치하는 등의 사업적 형태를 통해 우리는 도시재생이 갖출 수 있다는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도시재생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 동경의 '록본기 힐즈' 가 있다. 이 지역은 1986년 재개발 유도지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4월에 공사착공, 3년 후인 2003년 4월에 완공되었다. 17년이라는 긴세월과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2800억엔의 총공사비를 투입해서 재개발된 문화도시로 세계를 시야에 두고 [삶, 일, 놀이, 휴식, 오락, 창조]라는 다양한 기능을 복합, 서로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새로운 문화와 정보를 발신시키는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안하는 최첨단 지구를 목표로 건설된 도시재생지역이다.

2.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시계획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엄격한 용도지역제(Zoning)를 탈피,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concentration)의 개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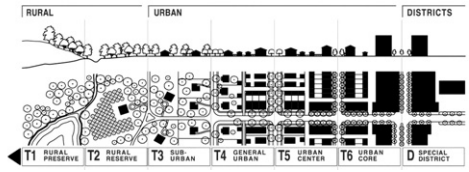
따라 다핵화전략을 수행하는 등 경제적 수행력과 도시의 활력을 개선함으로써 차후의 도시성장을 기존 도시경계내에 수용(Self-Containment)하려는 고밀도의 도시개발이 현재 우리가 말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이다. 특성적인 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도시의 에너지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내부에서 보다 고밀도를 추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공급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고, 둘째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인공공간과 분명한 영역분리가 된다는 점이다.

압축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 미국의 '아르고산티'가 있다. 이 지역은 이탈리아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1919년생)에 의해 1970년부터 인구5000명이 살 수 있는 도시건설을 목표로 첫 삽을 떴던 지역으로 지난 30여년간 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곳의 도시적 특징은 압축적인 개념, 다양한 공간의 건축물, 커뮤니티강조의 문화시설 및 행사, 태양열에너지이용, 유기농 농법, 재활용, 검소한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3. 뉴어버니즘(New Urbanism)

1) 개념

미국의 남부를 중심으로 인간중심의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전통적 이웃관계의 복 원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TND))을 위한 공간구조를 창조하였다. 이는 도시내 마을을 통해 보행자 중심은 물론 공공성공간과 개인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전통적 도시공간개념인 도시중앙광장(The Common)을 보행거리내에 위치하여 생활권의 중심 역할로 상업시설은 물론 공공시설을 배치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주거양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주택을 제공하여 공간적 변화는 물론 경관적 특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공간구조를 위계적으로 표현하여 다음 그림처럼 교외지역에서 중심지역까지 공간변화의 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를 구성하였다.



4.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

미국의 Urban Land Institute에서 성장의 관리와 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 등장한 도시성장관리(Urban Growth Management)는 도시의 장래 개발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을 관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도모해 준다. 도시성장관리에 있어 정책적인 면에서 일시동경(Moratorium), 단계적 성장

(Phased growth), 주택호수규제(Population Cap), 도시성장경계(Urban Growth Boundary)설정 등이 수립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오리건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Urban Growth Boundary(UGB)설정, 정량적 기준에 의한 개발축 설정, 개발의 우선순위 설정, 환경총량개념으로 관리, 제도나 전문행정시스템 등이 바로 도시성장관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5.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과 경제개발을 조화시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경제개발을 한다는 의미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 위원회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충족을 위해 경제개발을 할 때 생태계의 수용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생활수준만이 아닌 삶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꾸리찌바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대신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지혜의 등대 하루8시간씩 무료교육, 건축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고수하는 측면, 재활용 Program운영과 창의적 교육시설 등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모태로 한 계획들이다.

V. 창조도시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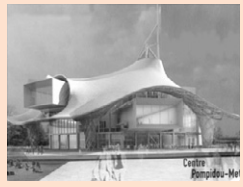
1. 역사재생도시

역사물의 보전	역사의물 활용	역사물의 변형
– 원형자체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하려는 방법 –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필수(사적 재산권 제약) – 단일건물보다는 면적일 경우 가치가 증가(부다페스트)	– 최소한의 변형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충실 – 변화기준에 대한 적용이 어렵고 신구의조화가 특징 – 장소적 의미를 역사성과 함께 유지하면서 설계의미부여	– 역사적인 프레임만 유지하고 내부의 것은 현대적으로 탈바꿈 – 전통의 이미테이션을 통한 유형적 변화 – 가스저장창고를 개조한 주상복합문화시설의 가소메타시티

2. 경관창조

맥락경관	상징경관	도시건축경관
– 도시의 이미지를 통일시킴으로서 도시전체의 시각적 일체화 – 구체적 계획기준이나 자생적 지역성을 가지는 경관 – 유사규모와 공통적 건축요소를 통한 도시이미지 구축(체코 체스키 크롬로프)	– 도시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시공간요소의 집중 – 어디에서나 도시의 상징성을 볼 수 있도록 공간구성 – 구시가지(박물관)와 신시가지(라데팡스)를 시각적으로 연결한 파리의 Grand Axis	–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한 사람의 호기심과 관심의 유발(Celebration) – 시간이나 계절변화를 통한 도시공간의 시각적 느낌 변화 – 도시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적 건축물(프라하 건축물/그라츠)

3. 복합용도개발

문화컴플렉스	기능복합	주상복합
		
– 소규모 도시를 형성하면서 기초적인 자급시설을 가진 형태로 문화의 가치와 비중에 초점 – TND(Trac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의 개념Urban Village의 형태로 Community 형성 – 전원문화의 개념과 공동체 형성을 추구하는 마을의 형성(Orlando의 Celebration)	– 기존의 일반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과 계획가(혹은 개발자)의 독창성에 의한 새로운 조합의 형태 – 다기능의 복합과 퓨전복합으로 새로운 기능의 창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관리운영 시스템의 구축 – 국립박물관과 과학센터와의 기능적 조합(메쯔의 퐁피두 센터)	– 복합개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고밀개발을 주도하고 한국에서 아파트주거의 대체기능으로 작용 – 비율의 조정과 다른 복합시설과의 연계성 강화 – 쇠퇴한 산업시설(Brown Fields)을 활용한 Atlanta의 Atlantic Station

Ⅵ. 창조도시 대전을 위한 제언

1. ISSUES

창조도시는 비록 개념적으로 새롭게 시작된 계획패러다임이지만 인류의 역사속에서 관습적으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과정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도시라도 창조성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 이런 관점에서 대전도 많은 잠재적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대전을 창조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이슈와 함께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창조도시론이 적용 가능한 도시규모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창조도시의 적절한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전체차원의 거시적 창조와 미시적 창조성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대전의 잠재적이고 내재된 자원은 무엇인가?

철도의 연결로 발전한 지역으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밭의 성격상 환경성과 역사성보다는 현대적이고 기술적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셋째, 대전이 대외적으로 인식되는 자원은 무엇인가?

근래에 들어 영화산업이나 교육 등 대외인식자원이 다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지인에게 비춰진 모습은 내륙교통의 중심과학관련시설로 판단된다.

넷째, 도시설계적 창조성은 어떤 것인가?

도시의 확장으로 신개발지중심의 도시공간구조론과 함께 도시디자인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원도심의 재생사업을 통한 창조적 기능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창조성을 발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가?

고유의 관료조직 성향이지만 도시개발모형을 창조성에 두고 있고 이를 위한 도시관리정책은 진보적으로 판단된다.

2. 창조도시를 위한 기본전제

1) 의지와 Leadership: Motivation / Management

도시의 새로운 특성부여는 지도자의 몫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물론 구성원의 의식수준과 참여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좌표와 방향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지도력은 위계적으로 하달되고 이를 위한 검증과 추진은 하의상달식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가장 창조도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시정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자신감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2) 강력한 지역 Identity 육성: Goal / Target

창조도시의 목적을 설정하기 위하여 잠

재된 지역여건과 특성파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성이란 뿌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측면은 물론 문화적 뿌리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적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3) Networking과 연대구조 확립

창조도시는 일부나 특정계층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 부분으로만 창조성이 형성되지 않는다. 전체성 체계(holistic Network System)를 갖추어야 하며 또한 공적인 부분고 k사적인 부분의 균형으로 통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관리와 조직의 속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완성된다.

3. 기본방향

1) 시정의 창조도시로 선언

시정책임자의 대외적인 약속인 창조도시 선포를 통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고 함께 추진력을 가질 수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도시마케팅의 주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현대 확장형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2) 내륙형 창조도시

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역발상적으로 착안하여 내륙에서 창조할 수 있는 지역나름대로 특성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창조의 바다도시 대전"을 추구하며 기존의 첨단과학의 이미지를 산업화와 연계하여 산학연 모델도시를 추구한다. 또한 교통과 물류 Innovation을 통한 거점경제를 확대한다.

3) 창조 System의 구축

물리적인 도시환경의 조성과 함께 이를 효율적이고 지역적이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간 협력체계를 완성하고 주민창의력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행정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인적 창의력을 배가시킨다.

4) 위계적 창조성 구축

창조성의 위계적 구축을 위해 도시의 거시적 창조 전략수립은 물론 도시의 미시적 창조 전략을 수립하며 특히 실행수단(Action Plan)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의 이미지나 창조성을 가장 손쉽게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창조물을 구현한다.

5) 도시디자인의 강화

대전의 경우 신도시부분의 확대로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한 이미지메이킹을 시도한다. 특히 갑천을 중심으로 도시경관특성화(주간/야간)를 추구하며 이를 위한 추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4. 추천전략

1) 맞춤 고부가 산업의 육성

부가가치를 위해 대량생산보다는 창의적 수공업을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공업센터(Craftsmanship Center)를 운영한다. 특히 지역의 역사자원과 연계하여 중원백제의 역사문화에 대한 과학적 재생(Contents 문화)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역산업으로 발돋움하는 오락소프트웨어(Entertainment Software)의 산업협력 파이롯(Pilot) 사업을 추진한다.

2) 주민주인의식 고취

현대도시공간구성은 공동체의 건설이고 이는 주민에 의한 도시창조 및 운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시안에서 지역적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위하여 지역별 공간 및 기능특성화를 추진하며 이는 주민창의 Center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구성인 주민의 창의성홍보와 격려를 위한 주민박람회개최도 고려해 본다.

3) 원도심의 역사 문화재생

어느 도시이든 원도시가 가지는 상징성과 역사성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의 도시관광은 역사의 속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잠재된 관광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능정이 문화지구 복합개발, 보행탐방로 구축을 통한 통행인구유입, Silver Town등 거주인구 확보를 위한 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4) 도시경관의 창조성

도시에 대한 인상은 경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거시적 도시경관상을 설정하고 지역적 경관특성을 부여함은 물론 공공디자인개념도입을 통한 상세경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대표적인 도시의 경우 도시상징물을 소유하고 있어 대전도 규모와 위상에 맞는 상징물의 건설을 통해 창조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도시의 바탕경관형성을 위해 주민협정 경관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주민경관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도록 한다.

참고문언

1. Masayuki Sasaki, The, Role of Culture-in Urban Regeneration in Europe, Blackwell. 2003
2. 사키마사유키, “세계도시와 창조도시” 2008
3. 이강건, 균형발전 : 미국창조 도시의 건설의 시사점,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41권 제6호 2006
4. 이수명, “문화도시 창조도시, 가나자와”, 『문화도시 문화복지』164호
5. 백운성, ‘창조도시와 클러스터’ 2007

6. 조성배,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방안” 2005
7. 이정인 “대구, 창조도시로 가는길” 2006
8. 임상오, “창조형 경제시대의 도래와 창조도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편),『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제이플러스 매드, 2006, pp96-118
9. 오성덕 외, 해외 도심재생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국토계획’, 제 39권 제 5호 2004
10. http://blog.empas.com/jsm0123/16435901
11. .http://blog.paran.com/munhwa365/8276313